

찾아오시는 길(대중교통)

- 5·18자유공원 정류장 버스노선
순환01A, 순환01B, 좌석02, 상무63, 상무64, 518
- 김대중컨벤션센터 정류장 버스노선
일곡38, 상무64
- KTX (광주송정역) 이용시 (약 20분)
버스 좌석02 승차 → 6개 정거장 → 5·18자유공원 정류장 하차
- 광주공항 이용시 (약 10분)
버스 좌석02 승차 → 3개 정거장 → 5·18자유공원 정류장 하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13 062)613-5184

유관기관 안내

국립5·18민주묘지(광주 북구 민주로 200)	062)268-5189
mpva.go.kr/518	
5·18민주화운동기록관(광주 동구 금남로 221)	062)613-8204
518archives.go.kr	
5·18기념재단(광주 서구 내방로 152, 1층)	062)360-0518
518.org	

광주광역시 5·18기념문화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gwangju.go.kr/518
062)613-7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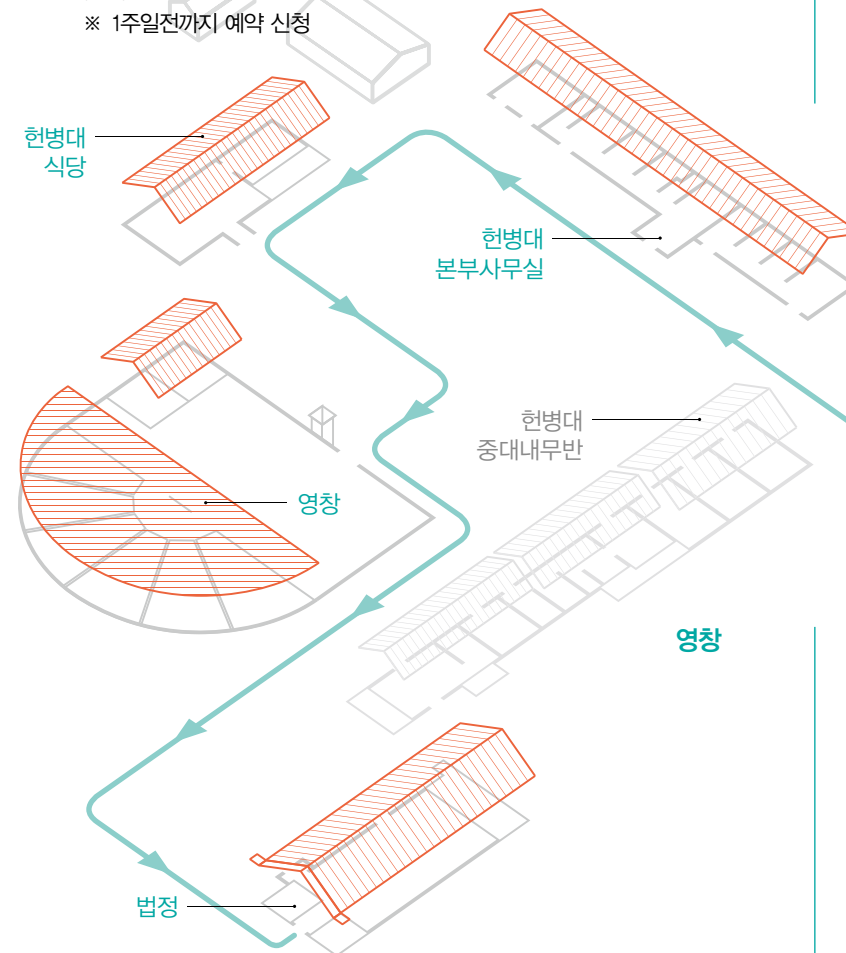
5·18 자유공원 법정·영창 상황재현극

1980년 당시 법정과 영창에서 있었던 일을 각각의 장소에서 연극 형식으로 보여드리며, 체험 신청자들도 함께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법정·영창 상황재현극

대상 유·초·중·고·대학생, 일반인 등(체험비 무료)
기간 연중실시(주말, 공휴일 제외)
※ 5·18행사주간 중점 추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장소 5·18자유공원(김대중컨벤션센터 옆)
운영횟수 1일 2회(2시간)
관람인원 1회당 3개 모둠 이내(20~90명)
접수처 (062) 613-5184, 376-5183
※ 1주일전까지 예약 신청



1980년대 당시 상무대 헌병대 영창이라 불렀음. 일부 정치군인들의 정권찬탈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구금되었던 곳. 강제 연행된 시민들은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6개 부채꼴 모양(1곳당 150명) 감옥에 수감되어 1일 16시간 정좌 자세 유지, 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구타와 감시 등으로 인권 유린당함.

체험 공간

헌병대 식당

헌병대 식당이었으나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등 연행자들에 대한 고문과 조사를 받는 임시 취조실로 사용함.



헌병대 본부 사무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계엄군에 끌려온 시민들을 조사했던 곳임. 연행 당한 시민들은 구타 등으로 허위 자백을 함.



법정

1980년 8월에 지었으며 5·18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구속자들이 군사재판을 받았던 곳임. 무장한 헌병 입장시켜 공포분위기 조성한 가운데 비공개 약식재판 진행. 구속자들은 재판 시작 전에 부당한 재판에 대한 항의표시로 애국가를 소리 높여 부름. 421명 실형선고(사형 5명, 무기징역 7명 등 포함)



상황재현극 관람후기

5·18자유공원 법정·영창
상황재현극 보고나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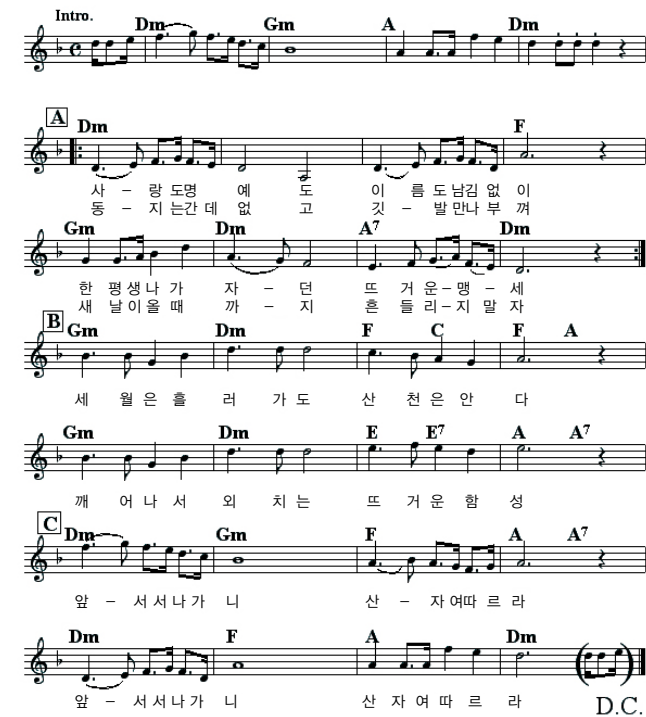
체험 전



체험 후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랫말 황석영 | 작곡 김중률



‘들불야학’의 교사가 된 윤상원, 그 ‘들불야학’의 창립 멤버였으나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박기순(1978년 12월 25일 사망) 짝꿍 이들의 인연은 1980년 5월 27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내외신 기자들에게 진실을 알리던 시민군의 대변인 윤상원(1980년 5월 27일 사망) 열사가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운명한 뒤 1982년 2월 20일 영혼결혼식으로 맺어져 마침내는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역사는 나아가야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역사 체험

5·18자유공원

한국어

법정·영창 시설 견학

대상	유·초·중·고·대학생, 일반인 등(체험비 무료)
기간	연중실시 (5·18행사주간 및 봄·가을 소풍시기 중점 추진)
장소	5·18자유공원 일대 (자유관, 법정·영창, 헌병대 식당 등)
소요시간	1시간 30분 - 2시간 30분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접수처	(062) 613-5184, 376-5183
관람순서	자유관 전시실 → 영상관람 → 헌병대 본부 사무실 → 헌병대 식당 → 영창 → 법정 → 헌병대 중대 내무반 → 들불열사 기념비



- | | | |
|--------------|----------|-------------|
| 1 5·18자유관 | 6 헌병대 식당 | 11 야외화장실 |
| 2 헌병대 중대 내무반 | 7 목욕탕 | 12 들불열사 기념비 |
| 3 헌병대 본부 사무실 | 8 연회실 | 13 주차장 |
| 4 창고 | 9 영창 | 14 5·18교육관 |
| 5 식기세척장 | 10 법정 | |

5·18자유공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정권찬탈을 기도하던 일부 정치군인들의 강경진압에 맞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이 구금되어 군사재판을 받았던 곳으로, 원래의 위치에서 100m정도 떨어진 곳에 원형으로 복원·재현하였다. 드높은 민주화 의지와 젊은 열정으로 불의에 항거했던 투쟁의 자취요, 인권·평화·화합의 상징으로 기억될 역사의 현장이다.

시설현황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평화로 13(치평동)
조성면적	33,058㎡
건축면적	2,988㎡(연면적 3,030㎡)
주요공간	시설보존지역, 자유관, 휴식공간
주요시설	보존시설 : 헌병대 중대 내무반(414㎡), 헌병대 본부 사무실(426㎡), 법정(223㎡), 영창(620㎡), 헌병대 식당(181㎡), 식기세척장(19㎡) 지원시설 : 자유관 (1,020㎡, 영상실 및 전시실) 편익시설 : 조경수, 분수시설, 기타 휴게시설 등

자유관(영상·전시실)

자유관 내 전시실은 역사의 사건, 맨주먹의 저항, 죽음과 부활, 천년의 빛 5·1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병대 중대 내무반

헌병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잠을 자는 휴식공간이었던 이곳은 1980년 당시 임시로 합동수사반의 심문실과 고문실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구타를 했다. 중대 내무반은 헌병들의 휴식공간이 아닌 시민들을 때려잡는 인간 도살장이었다.



헌병대 본부 사무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 본부였던 이곳은 시내에서 계엄군에 끌려온 시민들을 조사했던 곳이다. 수사관들은 조사하기 전부터 무조건 진압봉으로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시민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했다. 바로 옆에서 구타당하여 피투성이가 되는 장면을 지켜본 연행당한 사람들은 구타를 당하지 않기 위해 허위자백이라도 해야 했다. 옆 방에서 고문당하는 사람들이 지르는 신음과 비명은 끌려온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책상 위에는 굵은 곡괭이자루, 송곳 등이 놓여 있어 수시로 매질을 하고 송곳으로 손톱 밑을 찔러대는 만행을 저질렀다.



헌병대 식당

이곳은 헌병대 식당이었으나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등 연행자들에 대한 고문과 조사를 받는 임시 취조실로 사용되었다. 수사관들은 잡혀온 시민들에게 매일같이 지슬서와 진술서를 쓰게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온몸이 파범벅이 되도록 구타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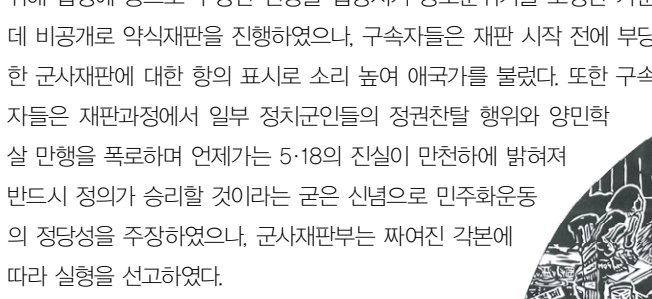
영창

당시 상무대 헌병대 영창이라고 불렀던 영창은 일부 정치군인들의 정권찬탈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구금되었던 곳이다. 이곳에 강제 연행된 시민들은 폭도라는 누명을 씌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의 온갖 고문 수사에 몸과 마음이 상하였고, 하루 16시간의 정좌자세 수감생활과 가혹한 구타와 감시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수감기간 동안 한 방에 많게는 150명씩 수감되거나, 영창 내 독거실에 10여명씩 갇혀, 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야했던 시민들은 폭력 앞에 굴종을 강요받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서로 굳게 뭉쳐 곳곳이 극복해 나갔으며 1980년 10월 27일 광주교도소로 이감될 때까지 구금되어 있었다.



법정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구속자들이 군사재판을 받았던 곳으로 1980년 8월에 5·18군사재판을 위해 지어졌다. 당시 군사재판은 진상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에 총으로 무장한 헌병을 입장시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비공개로 약식재판을 진행하였으나, 구속자들은 재판 시작 전에 부당한 군사재판에 대한 항의 표시로 소리 높여 애국가를 불렀다. 또한 구속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일부 정치군인들의 정권찬탈 행위와 양민학살 만행을 폭로하며 언젠가는 5·18의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져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군사재판부는 짜여진 각본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였다.



들불열사 기념비



들불야학 운동가 7인

*박기순, 윤상원, 박용준, 박관현, 신영일, 김영철, 박효선*의 모습을 새긴 기념조형물이다.

5·18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의 햇불



5·18민주화운동은 불법적으로 집권하려는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숨을 건 의로운 봉기였다.

시민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는 염원이 분출된 것으로, 5·18민주화운동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민주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독재를 거부하는 민주화운동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켰다.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은 유신체제를 계승한 "제5공화국" 정권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끝내 그 체제를 붕괴시키고 문민정부를 탄생시켰으며, 50년만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룩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결국 5·18민주화운동은 과거의 역사적인 민중항쟁을 통해 표출되었던 자주·민주·통일의 전통을 계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민주주의 발전사에 불멸의 금자탑을 세운 민권투쟁으로 기록되고 있다.

기억해야 할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은 이후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었고, 1987년 6월 항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1995년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을 규정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전직 대통령 등 92명이 내란·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처벌받기까지 전 국민의 염원이 모여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으로 이어졌다.

또한 2002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관련자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

5·18민주화운동으로부터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광주를 비롯한 전 국민이 보인 저항과 참여, 연대의식은 오늘날 세계에 중요한 민주화운동 사례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1년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주먹밥 나눔 체험



대상	유·초·중·고·대학생, 일반인 등(체험비 무료)
기간	연중실시(주말, 공휴일 제외) ※ 5·18행사주간 중점 추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장소	5·18자유공원
소요시간	30분
접수처	Tel. (062) 613-5184, 376-5183 Fax. (062) 613-7949 ※ 기관 및 단체 신청시 공문접수 (수신처 : 5·18 기념문화센터)
접수시 기재사항	기간 및 단체명, 신청인, 연락처, 참여일, 신청인원